

정부혁신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 포 일	2019. 7. 31.(수)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해양생태과	담 당 자	• 과장 명노현, 행정사무관 이형민 • ☎ (044)200-5310, 5315 • 해양생태팀장 황인서, 사원 손한별 • ☎ (051)400-7961, 7975
	해양환경공단		
보 도 일 시		2019년 8월 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3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바닷속 황금휴양림, '삼나무말'

- 해수부, 8월의 해양생물로 '삼나무말'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조류 중 유일하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삼나무말'을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삼나무말은 잎이 육지식물인 '삼나무'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갈조식물 개모자반과에 속하는 종으로 40~50cm 길이의 기다란 원기둥 형태를 지닌 갈조류*이며, 번식기인 5~8월이 되면 꽃의 꽃받침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황금색 생식기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광합성 색소인 엽록소a와 엽록소c 외에 광합성을 보조하는 갈색색소인 갈조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생물류

** 유성생식기관이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가지·잎 부분

삼나무말은 울퉁불퉁한 혹은 부착기로 활용하여 수심 5m 부근의 암반에 붙어서 생활하며, 한대성 기후를 선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울진 이북에 한정적으로 분포한다. 암반이 잘 발달된 곳에서 쇠미역 등과 함께 넓은 바다숲을 형성하며, 해양생물들이 서식처,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등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환경오염, 해조류를 갹아먹는 성게의 이상증식 등 삼나무말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삼나무말은 우리 바다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삼나무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삼나무말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삼나무말은 해조류 중 유일하게 지정된 해양보호생물로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라며, “특히 5~8월은 삼나무말의 번식기인 만큼 수중 레저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서식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삼나무말을 비롯하여 생태학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국 갯벌, 암반, 연안, 근해 바다생태계의 위협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삼나무말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바닷속 황금송아말

삼나무말은 잎이 육식식물인 '삼나무'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갈조식을 개모자반과에 속하는 종으로 40~50cm 길이의 기다란 원기둥 형태를 지닌 갈조류이며, 번식기인 5~8월이 되면 꽃의 꽃받침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황금색 생식기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해양생물들이 서식처,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등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녔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환경오염, 해조류를 갉아먹는 성게의 이상증식 등 삼나무말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 바다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해양수산부는 삼나무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채취·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한대성 기후를 선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울진 이북에 한정적으로 분포한다. 울릉불통한 혹은 부척기로 활용하여 수심 5m 부근의 암반에 붙어서 생활하며, 암반이 잘 발달한 곳에서 쇠미역 등과 함께 넓은 바다숲을 형성한다.



주요 서식지역

Coccophora langsdorfii

(바닷속 삼나무말)



(삼나무의 삼나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혁신성장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든다

